

한림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x 춘천문화재단

2026

나의 춘천문화 답사기

춘천의 길을 걷고
공연예술을 만나는 문화답사

길 위의 감각이 공연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하루

PROGRAM PROPOSAL



공연을 중심으로 하루의 예술적 서사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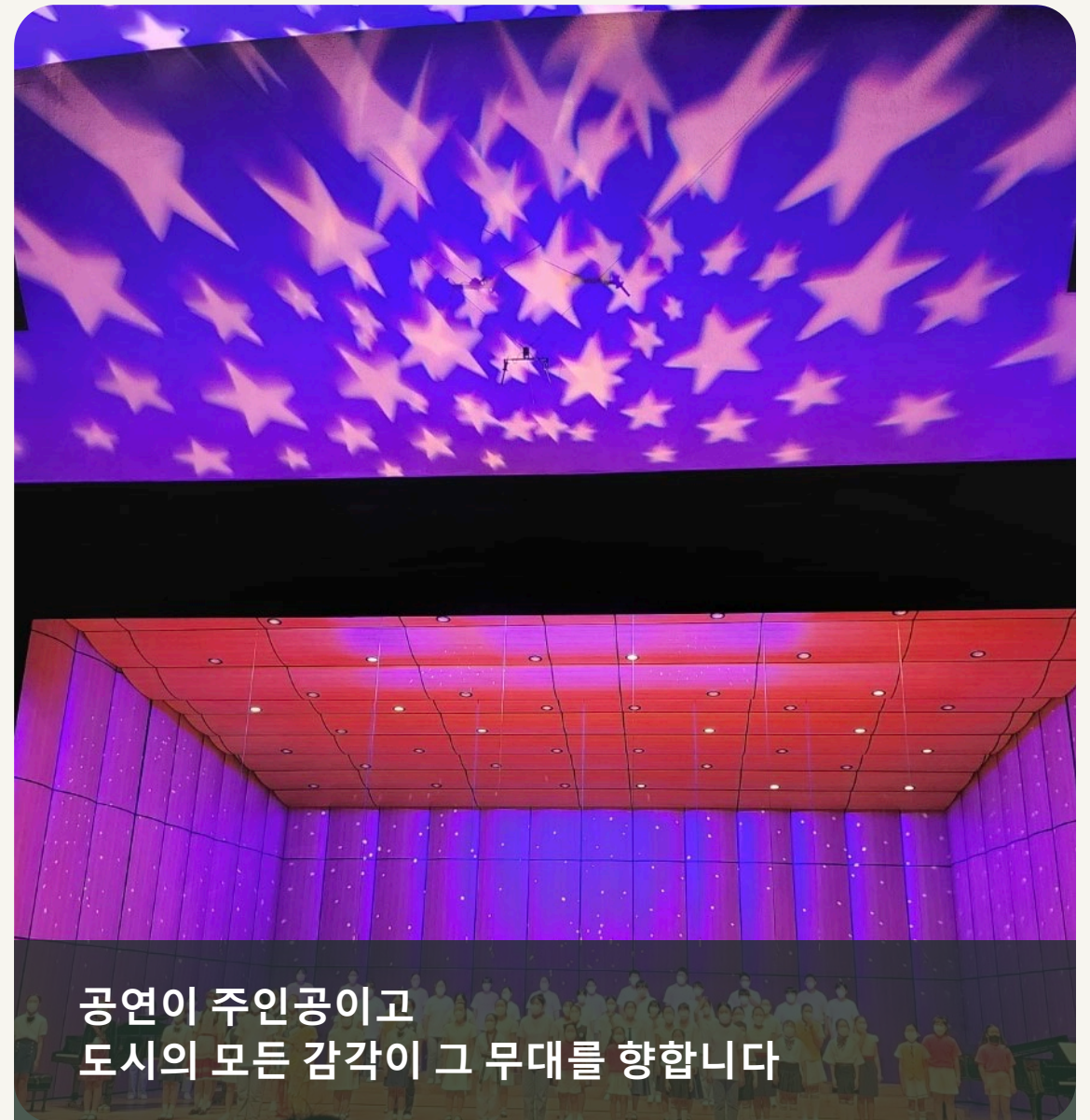
춘천의 맛과 차 한 잔의 시간은 공연의 여운을 나누며
하루의 예술적 서사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걷고 · 맛보고 · 보고 · 나누는 경험

식사와 산책, 공연 관람,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공연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각자의 감각으로 춘천의 예술적 서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술의 울림 감각의 산책 지역의 맛 오감의 기억 함께 나눈 이야기



7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이끄는 일곱 개의 문화답사

모든 코스에서 공연이 주인공입니다

01	춘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탱고부에노스아이레스	춘천문화예술회관공연장 10/2(금) 19:30
02	춘천시립예술단 ·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88회 정기공연	춘천문화예술회관공연장 10/30(금) 19:30
03	춘천연극제 · 공지천의암공원	마법같은 날	공지천 의암공원 10/11(일) 16:00
04	춘천인형극장	하하랜드	춘천인형극장 대극장 10/16(금) 미정
05	춘천몸짓극장	머무는바람: 흐름과 정지사이	축제극장 몸짓 11/7~8(토~일) 미정
06	KT&G 상상마당 춘천	A tempo 권나무 공연	KT&G상상마당 춘천 A동2층 테라스 10/17(토) 16:30
07	춘천시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합스테이지 공연	춘천시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11/18~21(수~토) 날짜별

기준 나만의 문화답사를 만드는 다섯 가지 기준

1

공연

오늘의 중심
공연을 선택합니다

2

맛기행

지역의 맛으로
하루의 감각을 엽니다

3

골목산책

길과 풍경을
몸으로 만납니다

4

경험나눔

차를 마시며
공연의 장면과
감정을 나눕니다

5

나만의 기준

내 취향과 방식으로
춘천의 하루를
구성합니다

공연과 동선은 제안일 뿐입니다

길과 맛집, 카페, 공연 모두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춘천의 문화답사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탱고부에노스아이레스

책

담작은도서관

길

효자동 벽화마을

식

오오모리라멘

공

춘천문화예술회관

차

춘천로 81 커피



담작은도서관

계단을 올라 나지막한 서가에 도착하면 나만의 다락방 책방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난다

효자동 벽화마을

정감 어린 담장과 벽화를 지나 환한 여자아이를 카메라에 담으며 골목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오오모리라멘

두툼한 돼지고기와 탱탱한 면발은 일본으로 순간 이동한 듯한 점심의 장면이 된다

탱고부에노스아이레스

강렬한 리듬과 춤이 골목에서 모아 온 감각을 무대 위의 뜨거운 장면으로 바꾸어 놓는다

춘천로 81 커피

수제 바스크치즈케이크와 춘천로라떼 앞에서 공연의 장면과 대사를 다시 꺼내어 이야기한다

다른 선택 효자동 누룽지 백숙

제188회 정기공연

식

한옥쿠치나

공

공연장

길

약사천 산책길

차

마릴본

한옥쿠치나

한옥의 고요한 처마 아래에서 시작하는 식사는 공연 전 마음을 낮추는 작은 리허설이 된다

약사천 산책길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의 소음도 관현악의 숨 고르기처럼 멀어진다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88회 정기공연

익숙한 춘천의 저녁에 오케스트라의 깊고 단단한 호흡이 더해진다

마릴본

차를 마시며 각자 오래 남은 선율과 장면을 꺼내어 오늘의 악장을 함께 마무리한다

다른 선택 전주비빔밥



약사천 산책길

마법같은 날



춘천MBC 사옥카페 FROM

커피를 들고 바라보는 강변은 공연장으로 향하는 첫 장면이 된다

강변 산책로

관객의 발걸음을 천천히 무대 쪽으로 이동시키는 자연스러운 무대 전환이 된다

마법같은 날

공지천의암공원에서 만나는 거리공연은 우연히 열린 하루의 작은 마법처럼 다가온다

광수생각

함께 나누는 식사와 이야기는 농담과 진심이 섞인 오래 기억될 한 장면으로 남는다



춘천인형극장

어린 시절의 인형은 움직이는 순간 가장 작지만 가장 진지한 배우가 된다

하하랜드

웃음이라는 쉬운 문으로 공연예술의 상상력 안쪽까지 들어가게 한다

육림랜드

넓고 다정한 풍경은 놀이공원이라기보다 오래된 기억을 보관한 무대 처럼 느껴진다

피우메

차를 마시며 나누는 공연 이야기는 동심과 현실이 다시 만나는 조용한 엔딩이 된다

머무는바람: 흐름과 정지사이



보문각

오래된 중화요리의 시간에서 답사는 익숙한 춘천의 맛으로 시작한다

라벤더 꽃길과 망대길 어린이놀이터

움직임과 멈춤을 몸으로 예습하며 원도심 골목의 속도를 천천히 느껴 본다

머무는바람: 흐름과 정지사이

무용수의 몸짓은 내가 걷던 골목의 리듬과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경서재

차를 마시며 나누는 공연 이야기가 하루의 감각을 차분한 기억으로 정리한다

죽림동 성당

아름다운 건축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은 이 코스에 더해지는 작은 보너스가 된다

A tempo 권나무 공연



라모스버거

든든한 맛은 호수길을 걸을 에너지가 되고 공연 전 마음을 기분 좋게 채운다

공지천 산책로

물과 바람과 발걸음이 같은 박자로 흐르며 공연을 기다리는 감각을 깨운다

A tempo 권나무 공연

조금 흐트러졌던 하루가 음악과 함께 다시 제 속도를 찾아가는 저녁이 된다

댄싱카페인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이야기가 호수의 여운과 음악의 잔향을 오래 붙잡아 준다

합스테이지 공연



장소의 상대적 위치는 실제 지도를 바탕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식물의 질서와 계절의 속도로 답사의 첫 호흡을 천천히 열어 간다

평양냉면

담백한 맛이 공연을 기다리는 마음까지 가볍고 선명하게 정돈한다

합스테이지 공연

공연예술이 창작에서 무대로 이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장되는 현장을 만난다

디어라운더 커피앤브런치

차를 마시며 공연의 인상과 오늘의 발견을 나누는 조용한 마무리의 자리가 된다

다른 선택 부일정



실제 문화답사를 통해 춘천을 예술적으로 경험하고 그 기억을 하나씩 쌓아 가는 일

공연장으로 향하던 길과 함께 맛본 음식, 차를 마시며 나눈 공연 이야기가
오래 기억될 나만의 춘천을 만듭니다

걸고 · 만나고 · 느끼고 · 기억하는 춘천